



진리
평화
창조

오대학보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590호 1992년 10월 27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서울, 23일 파업통해 학자 움직임 본격화

파업이전 양측대표 만났으나 학교이전안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 11월까지 파업 계속될 듯...학교측 강경대응 표명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실시한 '수업거부'를 위한 찬·반투표 결과 총41만1천1백2명(전체 재학생의 62%)이 투표. 찬성 3만3천4백4명(83.7%)으로 캠퍼스 총학생회의 '강제 파업'을 중 60%의 투표 결과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 이하는 이제 수업거부의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23일(목) 각 학과마다 수업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거부'의 범위

수업거부 이전에 총학생회는 22일(목) 대학당국과의 최종합의를 갖고 학생회가 요구한 △외대발전위원회 구성 △재단의 예산산 공개 △자카르타(세종대) 토지 포탈 사용 용도의 명문화 및 캠퍼스 이전을 위한 토지조각의 사용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대학 당국의 입장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학생들은 23일 노숙농성에서 135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업거부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수업거부기간 동안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위원장도부 핵심으로 꾸리고 앞으로의 입장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제(26일)부터 시작된 '시월제'기간 동안은 행사체제를 본보발진 요구에 부응하는 행사들로 치러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서울캠퍼스의 수업거부는 다른 배의 파업양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 용인캠퍼스가 정치적 사안 혹은 학교의 동향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업거부에 참가해왔던 반면 '본교발진'이라는 문제를 놓고 학원이 바깥에서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것은 본교 사안 때문임이다. 특히 그동안 파업이거나 시위를 조율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나 수업거부라는 단 하나의 행위를 통해 1.2학년은 이번 13일에 중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내년 이후의 학사구조까지도 대대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본교 발전에 대한 대학당국, 재단의 답변을 요구하며 23일 파업을 단행했다

이런 조지와 관련하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상남(사상 노이4)군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그동안 인명(행정) 부총장, 학생(이대)에 학생회장과 민간의 지지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계속 전달했으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대학당국이 회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단행행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이러한 견해차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학생(이대) 박상남 총학생회장, 조원희 학생복지위원장 사이의 합의를 지리에서 분방하게 정리를 것으로 귀결했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합의'와 관련하여 정리가 있었지만 '재단' 토지조각 공개에 대한(이대)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부분의 합의는 있었으나 이 토지의 이용에 있어 부응하는 캠퍼스 이전 부분을 적극 검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명시하지는 않는데 대학당국 대표들은 '학교발전(교육을 토지)을 위해 사용한다'

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이번 핵심사안을 볼 수 있는 학교측 최고 결정자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예에 비해 이대대학의 입장전반이 없었음에는 내일(28일)부터 자카르타 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재단 실무책임자인 '재단 전무이사'의 회견을 요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학당국, 강경입장 고수

한편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따라 대학당국도 긴급교무위원회(위원장 이강학총장)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수업을 강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어제(26일)와 단대원 학생모임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남 총학생회장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상징하고 이를 학과별, 또 다른 등을 거쳐 전반투표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도 기층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직원의 입장표명이 있어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명확해진 가운데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태유지를 살피고 있는 일반교수, 직원들의 활발한 의견전달 및 중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수협의회의나 직원노동조합 등 각 주체들의 대표기구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을 시사하나 이들 기구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 따라 이번 수업거부의 향방에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상되어 있어교수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수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지난9월 말경 서울캠퍼스 총

학생회에서 교수3백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의 '본교발진을 위한 총학생회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중 일부수집된 설문내용들이 표본추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설문내용에 따른 교수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본교의 상황이 총체적으로 어리둥을 시키는 점과 한한 학사제안인 캠퍼스 이전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사안과 그와 같은 토지의 구입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본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교 발전을 위해서는 기구적인 및 구체적인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노동조합(조합장 유기환, 용인캠퍼스 시청각교육원 주임)의 경우는 어제(26일) 학생회 수업거부에 대한 직원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방위로 학생회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직원노동조합의 태도 표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보 12면 광고란 참조)

시월제 이후 대학당국·학생측 관계 악화될 듯

이번 주 시월제를 분수령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수업거부는 앞으로 총학생회측이 사회화과를 제외한 전 건물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실행하도록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 앞으로 이대라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용인캠퍼스가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각종 학생회 선거를 끝마치고 그동안의 투쟁의 열의를 총집결을 서울캠퍼스의 사안에 따른 본지적인 연대 수업거부의 동향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대학당국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 11월은 본교가 학원지주와 하는 목표를 두고 크게 승패를 갈라볼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 본보편집장



오늘을 사는 자의 동지에

▲중간고사도 거의 마치고 학원지주의 열망이 과잉으로 달아오를 무렵 또 한명의 동지가 사복형사4명에 의해 양팔을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작년 6·3투쟁과 관련하여 1년4개월여 수배를 받아오던 박철진(서학·영의2, 제의)군이 지난 19일(월) 서울 회계회 박근에서 연행된 것이다. 목격자에 의하면 경찰은 반항하는 박군의 코와 눈에 세계에서도 성능중기로 이름난 최루가스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백주대로부터 최루가스 냄새까지 있어가는 장친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듯이 민중들 대한 민간의 갈라는 결코 지칠줄을 모른다.

▲집에서 함께 생활해오던 동지가 입소장에 "극악한 폭력의 표본인양 매도된 6·3. 그러나 그것은 폭력정권의 것대에 의한 관장자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법'이라는 허물을 뒤집어엎는 제도의 폭력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었다.

외대에서 있었던 6·3투쟁의 정당성과 본질적 의미 등을 이제 와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사족일 뿐이다.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외대의 용기와 애정은 뜨겁게 흐르고 있었음은 지난 24일(토) 이문에서 열렸던 구속학생 영지금 마련을 위한 바둑부 바둑술집에 구역구이 모여든 바둑 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녘의 바람이 저리도록 쌀쌀한 늦가을 추위를 수감되어 있는, 그리고 수감생활 중인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항상 함께 자리하는 외대인의 온기 때문이다. 교수, 직원, 학기들은 늘 함께 있는 외대는 외대의 온기를 수감되어 있는, 그리고 수감생활 중인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항상 함께 자리하는 외대인의 온기 때문이다.

▲요즘 캠퍼스는 논쟁이다.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고 중심이 될 사람을 뽑는 각 학생회선거가 있고, 외대발진을 위한 파업의 진행과 함께 시월제가 한창이다. 바깥 가운데에서도 외대발진을 향해, 자주학원 건설을 위해 힘쓰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파업과 함께 맞는 시월제는 슬프고도 화해의 정경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열거한 바둑이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임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띄고 노예하고 부패하는 가운데 한기조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멸하는 학생들, 교수,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한다. 그리고 비록 대학당국에 의해 제재되고 있지만 외대인들 수 밖에 없는 여러 구속자들, 수배자들도 우리들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대의 힘을 집결하여 대선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며 민주의 이름으로 구속 학우들을 우리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다.

이준미

지민안내

- 4면: 시리즈 첫번째
92년 대통령선거의 의미
- 5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배경
- 7면: TV드라마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상
- 8면: 용인학생의 외대발진안 인식도 조사
- 9면: 간첩단 사건에서 제기되는 의혹
- 10면: 학자논의 소기구 구성 시급

韓國外國語大學校

1993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정원: 5개학과(7개학과) 각 학과별 정원
가. 문과대학: 국어문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나. 사범대학: 국어문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다. 사범대학: 국어문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라. 사범대학: 국어문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마. 사범대학: 국어문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국어학과(10명)
2. 모집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나. 석사과정: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다. 석사과정: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라. 석사과정: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마. 석사과정: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3. 시험과목: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가. 국어문학과: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나. 국어학과: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다. 국어학과: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라. 국어학과: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마. 국어학과: 국어문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어학과
4.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나.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다.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라.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마. 원서접수: 19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5.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가.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나.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라.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마.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다수 국민의 참여 통한 정권교체의 장

3852

서울 '92시월제. 어제 개막

본교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

[illegible]

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제 경제 상황이 많은 어려움을 접하며 단단히 굳어진 것이 아닌 '내외국간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로 현재에 있는 학생들의 열의를 인식해

또한 자원봉사나 해외선교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도 해외의 성공적인 기업체 활동 위해 다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사회의 총연출을 받은 총학생회장과 부위원장 김리태(동양, 중국) 같은 "이번 학기가 파견의 원천인 '내동향단'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만큼 모든 해외인이 주위의 시선을 갖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봉사활동을 맡고 있는

부은 두문자식이나 기가막힌 어휘만을 읽고는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은 참치 비둘기 잡꼭배에 의해 정창된 것이다

이에대해서 서울캠프스 총학생회장 6·3주까지 동아시아지역 10개지역 청취권 등지처럼 한두마디를 통해 '복합' 복합발전과 '복합' 복합발전의 석방'을 구했다.

외국어 경시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10월2일(수) 오후 3시부터 중앙교육원인 강당에서 '제3회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대회' 성격을 가진 외국어 경시대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서울, 의학추위 22일 발족

민중대통령 추대 결의

서울 10월22일(목) 오후4시
 시인 박승호 노년주간지 기자는
 1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학원 추대비를 위한 의
 대 학생 추대위원의 발족식'(이하
 의하추대식)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의하추대식 집행회
 (동장·중국어)로 온인 의하추
 대비 '민중이 진정한 의하의 주
 체임'과 '민중의 주인임을 표
 현하'고 민중의 대변자인 '민중 대
 통위원'을 이날 대선에 임명

이상의 보수정권들과 당파의
 맞서기 위한 조그만 움직임의
 하나로 봐도 학사취급 실의
 고교와 고 추대위의 계기점을
 실생했다.

또한 이날 추대하는 박승호
 인은 노동들 해방의 상징인
 자적 정씨해방의 민중대학원
 추대비 추대추진위원회와
 자적취급 사무원 추대비추진
 추대위원의 건설과 민중대학
 실생 지지를 선언하였다.

운인 동아리 연합회
신규동아리 인준

울진캠퍼스 동아리 연합회는 지난 10월 12일(월) 신규 동아리로서 카리커큘럼(SCA), 비미가, 애드벤처(AD-Valley) 등 3개 동아리를 인준했다.

이민애 이사장은 인준된 동아리 생활의 중요성을, 애드벤처는 매체교육에 소속되며, 카리커큘럼은 전문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동아리 음악회를 베푸는 모임으로 연행분과에 소속된다.

이시관 

“본로 발지리라는 기호를 위해서는 모든 학자에 공통 생활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학자구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로 발지리에 대한 요구들은 이 분출구에서 서울캠퍼스에 서는 각 학과별 발지리위원회의 구성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조직된 ‘영아과 발지리추진위원회’(이하 영발추) 회원구 구성에 관한 22년은 영발추구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이들은 ‘영발추는 전문적인 학자구구 하나이기 때문에 정회원·회생자(학부생)에 대한 이 조(조)는 학과별 발지리위원회’라고 조직적이며 현재의 한계를 스스로 토로하고 있으나 서는, 영발추를 모두 산하 발지리위원회로만 분류, 분류, 하

“본보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있는 입장에서 인간성을 생각하는 의식적인 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캠퍼스 영어과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민수(영외)를 만나〉

커리는 원래 제2외국어이수자가 하며 학과의 장단도 프랑스어 학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흥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을 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강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의 개인적

지욕한 ‘학자지위’의 갖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토목적인 것은 가장 영향력있는 교수로 이루어지는 우물함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본교 영어과 교수와 학생의 발전은 다른 학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 위원과 보지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적인 일은 대학 전체적으로 학과를 지원하겠다는 의도.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대책은 학제상 다른 학과가 개입적인 입장에서 심신 지원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전체대학에서 시너지 효과를 더 다스려야 한다”고 영어과와 학제적 구조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영환 본보진보〉

본보 전 취재차장

박재철군 19일 연행

지난 10월19일(월) 밤 10시30분경 지난해 6·3정황의 폭력·무장투쟁과 관련한 수배를 발한 1인1본조 취재자간 박제철(서울·영여2, 제적)군이 회기여부근 우촌읍에서 기사를 취재하는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도중 미리 잠복해 있던 청랑의 자살사 특수반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에대해 서울캠프3 총합계 1회와 6·3구구자 경치에서 1월12시경 청랑이 동지자 합계 1분을 통해 '폭력·불법연행'과 '구구자'와 '박제철군의 석방'을 요구했다.

외국어 경시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10월21일(수) 오후 3시 본교 중앙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영시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이번 영어 부문 최우수 수상자인 민경인(대전대성고) 2·군과 최후순(대전대성고) 2·군을 비롯하여 총 1백 64명의 학생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전교려·한양대서

제17기 바조시가전

지난 10월24일(토·25일) 양남군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기 전국대학 교육자 집결전 연합(이하 전교련) 출범식'이 전국 5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서울지역 교직원집결전 연합회장 정원일(본교 교직원집결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전교련 출범식에서 참가한 교직원들은 대하인문관암 본새와 전인 사상을 찬미하였다.

민중의 이름으로 권력을 밀어치기 하다 * 지난 10월24일(일) 고려대학교는 민중대학원 개교식에서 사흘간의 내부 결정과정 및 배기한 추진주도 역할을 맡아 온 '민중대학원'을 소개하고, 앞으로 추대된 민중대학원의 성격을 설명해 '보'장기관에 생산·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실력을 제치려는 민중의 정의의 형성과 민중대학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민중 대응후보로써 대선에서 민중대통령후보로 출마의 진의를 강조했다.

또한 민중대학원은 참가한 학생들의 정치·경제의 공동체로써 민중이라는 정치적 허무주의에 운동·성을 분해해서 내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했다.

용인, 애인제 · 청맥제 열려 다. 또한 오후 7시에는 제6대

하새회장 후보자 소경도 발표

용인캠퍼스 인문대 학술·문화인제인 '제4회 애인제'가 지난 11(수)부터 23일(금)까지 3

영자신문, 인쇄 보류 조치 발

‘애인제’ 기간동안 사학과 탁

아마도 그의 ‘주화상’은, 정철과 영랑의 시에서 보이는 ‘주화상’의 전통에 따라 중세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이전의 시에서 보이는 ‘주화상’은 낙담비로 묘사되고 나타난 선정화상의, 이른바 ‘주화상’ 풍류화, 이른바 ‘주화상’의 전통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22(목)에는 ‘22
주화상’의 문 행에서 시화상과
주화상의 주화상 용인화상
의 문 행이 열렸다.

22 시는 노구름 등반으로 시

육이 하자'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며 이날 설명회에서 시청각

주간교수의 인쇄 보류 조치는
기자들의 편집자유권을 침해하
육원측은 일반인이 실
2408호, 2409호, 2507호

윤영철은 “학원지주화 추경안”의 [이하 추경안]은 지난 9일(금) 오후 6시 학원법안 1차에서 “제기 발의식을 가

본교생 40여명

한 조사, 연구, 집행체계의
문기구조로 지난 학기 등록금

1940년 10월 10일, 조선의 광복이 결정되었으므로 대학원생과 학원교수와 학사로서 이념을 중심으로 할 일을 해야 했다.
 이번 발족에서는 그동안 공산에 입문한 학자나 학생은 물론이고 학생회와 사생부, 학원 교수를 인솔하여 10월 10일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다. 이 날은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이 날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평화, 민주주의 속까지 도달하는 데 학원민들은 이바지하기 위해 활동 할 예정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제16차 모의 U.N. 총회

의제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장소 :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일시 : 1997년 11월5일 오후6시

모의 U.N. 총회 각국대표 (아래 순서는 발원순임)		모의 U.N. 총회 심사위원 (아래 순서는 가나다순임)	
의	장 : 안원복 (외대 법)	김래원	교수님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사	무 총 : 이정운 (외대 영문)	김승진	교수님 (외대 정치외교학)
브	라 질 : 허성순 (외대 포이)	김윤진	교수님 (외대 아프리카어)
프	랑 스 : 박해관 (외대 영문)	김태경	교수님 (외대 일본어)
케	나 : 김승국 (외대 아프리카어)	민홍택	교수님 (고대 서서서문학)
롤	한 드 : 이영수 (외대 폴란드어)	Button	교수님 (외대 영어)
한	국 : 정영숙 (외대 한글)	이금식	교수님 (외대 영어영문학과)
미	크 : 조원숙 (외대 영어)	이창희	교수님 (외대 법학)
리	크 : 열성준 (외대 아랍어)	장 실	교수님 (외대 노어)
중	국 : 이왕규 (외대 중어)	장규호	교수님 (외대 포르투갈어)
멕시코	국 : 김지원 (고대 서문)	정병민	교수님 (외대 폴란드어)
독	일 : 이우현 (서울대학교 독문)	정영필	교수님 (외대 마인어)
북	한 : 김경익 (외대 일)	조수철	교수님 (외대 불어)
인도네시아	국 : 전미자 (외대 마인어)	최관광	교수님 (외대 중국어)
러	시 : 김주영 (외대 노어)	최 열	교수님 (공체추방운동연합)
		홍순남	교수님 (외대 아랍어)

제14대 총학생회 회장 · 부

기호1번		참인으로 전진하여 기습으로 참민주 총학생회 기필코 쟁취
정: 김덕원(서하·영어 86)	부:	
69년 서울 출생	69년	
88년 서울관악고 졸업	88년	
88년 본고 영어과 입학	87년	
91년 제4대 동원 학술제2분과장		
92년 제14대 총학생회 회장 임후보	88년	
	92년	

제16차 모의 U N 총회 준비위원회

학생처

100

